

한국불교사의 호국 사례와 호국불교 인식*

김용태*

• 목 차 •

- I . 머리말
- II . 신라의 호국불교 유형과 사례
- III . 고려와 조선전기의 호국사례와 인식
- IV . 조선후기 승군활동과 충의의 시대성
- V . 맺음말

한글요약

본고에서는 한국불교사에 나타난 호국의 사례와 호국불교 인식을 신라, 고려와 조선전기, 조선후기로 나누어 살펴보고, 각각의 특성을 시대성의 발현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해 보았다. 먼저 신라의 호국사례는 고대적 호국신앙의 발양이라는 측면에서 불국토와 호국사찰, 호국법회와 의례, 호국신앙으로 유형화하여 해당 사료를 검토하였다. 다음 고려는 불교 국가로서의 특성을 전제로 승려의 전쟁 참여, 불교의례의 국가적 설행, 호국신앙과 불교의 습합, 국난 극복을 위한 기원과 대장경 조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조선전기의 경우에는 불교를 비롯한 전통적 호국신앙 및 관념의 지속과 변화를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조선후기는 임진왜란의 승군 활동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는데, 유교사회의 시대성에 부합하는 충의의 실천을 통해 불교가 존립할 수 있었음을 살펴보았다. 호국불교라는 개념은 식민지 전시체제, 해방 후 국가민족주의의 고양이라는 근현대의 상황 속에서 대두한 것이지만, 한국불교사의 전개과정에서 호국불교의 전통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다. 다만 각각의 시대적 함의와 특징이 다르므로 시대성에 입각한 차별화된 이해가 필요하다.

주제어

호국, 호국불교, 호국신앙, 충의, 시대성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61-A00008)

** 동국대(서울) HK교수.

I. 머리말

한국에서 ‘호국불교’ 개념이 학술의 장에서 담론화 된 것은 식민지 시기였다.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 직후 神佛分離와 廢佛毀釋에 의해 불교가 존망의 위기를 겪은 후, 천황제 이데올로기 확립과 군국주의 강화에 적극 협력하는 등 국가불교의 길을 걸으면서 호국불교의 인식이 생성되었다. 특히 1930년대 후반 이후 전시체제로 접어들면서 일본불교는 전시교학을 제창하는 등 皇道佛敎를 적극 표방하였다. 1938년 오쿠라 정신연구소에서 발행한 『護國佛敎』에서는 황도불교론을 통해 국체(천황)와 불교를 결합시킨 논리를 내놓았다.¹⁾ 불교와 국가의 결합은 식민지 조선에도 즉각 영향을 미쳐서 호국불교와 관련된 진호불교, 전시불교 등의 용어가 풍미하였고 한국불교에서도 호국적 전통이 주목되었다.²⁾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조선 불교계는 민족의식의 각성이나 국가의 존망에 관한 위기의식보다 문명개화의 신시대를 맞아 불교가 어떻게 근대종교로 거듭날 수 있을지가 중차대한 관심사였다. 당시 식민지체제에 대한 무저항적 수용과 순응은 불교계가 호국보다 호교, 민족보다 불교를 우선시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³⁾ 1919년 3.1운동 이

후에는 청년승려 등 불교계의 혁신세력이 민족의식에 눈을 뜨게 되었고 정교분리 원칙에 의한 교단의 자율권 확보와 사찰령 폐지를 주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교단의 자율성 제고와 통일기관 수립을 위한 일련의 노력은 식민지 체제의 정치적 현실에 가로막혀 실현되지 못하였다. 더욱이 1930년대 말부터 황민화와 전시총동원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본사 주지를 비롯한 불교계의 주류는 그에 적극 협력하였고 천황과 일본을 위한 호국, 공공을 위한 개인의 희생이 장려되었다. 해방 이후에도 국가주의적 색채가 짙은 호국불교의 유산이 무비판적으로 계승되었고,⁴⁾ 1960-70년대의 정치적 민족주의와 국가주의 고양 시기에는 한국불교의 호국적 전통이 학계와 사회 모두에서 주목되고 각광받았다.⁵⁾

본고는 한국불교사에 나타난 호국 사례와 인식을 시대 순으로 개관하고 그에 대한 기존의 이해방식과 내용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호국불교가 과연 한국불교사 전체를 통관하는 학술적 개념이 될 수 있는지 타진해 본다. 각 시대별로 호국과 관련된 공통된 특성과 차이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는 근대에 만들어진 호국불교 개념이 실제의 역사상에는 적용되지 않는 허구적 관념일 뿐인지 재고해 본다.

1) 김영진, 「식민지 조선의 황도불교와 공(空)의 정치학」, 『한국학연구』 22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0), p.55

2) 이미 江田俊雄, 『朝鮮佛敎と護國思想-特に新羅時代のそれに就いて』, 『朝鮮』 239 (1935)에서 한국불교의 호국사상이 주목되었고 矢吹慶輝, 『鎮護國家と日本佛敎』, 『朝鮮佛敎』 108 (朝鮮佛敎社 1935)이나 土屋詮教, 『國體と佛敎の勤王護國思想』, 『中央佛敎』 25-11 (中央佛敎社, 1941) 등 이 시기에는 일본과 한국에서 진호국가와 근왕, 호국 등을 다룬 글들이 대거 등장하였다. 한편 安東相老(권상로), 『臨戰의 朝鮮佛敎』 (근商會, 1943)는 참전을 독려하기 위해 전쟁과 불교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호국불교의 전통을 강조한 책이다.

3) 김용태, 「식민지 불교의 혁신론과 문명개화의 여정」, 『東國史學』 48 (동국사학회, 2010)

4) 해방 후 본격적인 불교관련 첫 학술논문집인 『白性郁博士頌壽記念佛敎學論文集』 (1959)에 실린 禹貞相의 「李朝佛敎의 護國思想에 對하여-특히 義僧軍을 中心으로」도 조선시대 승군의 호국사상을 다룬 것이다.

5) 이러한 ‘호국불교’ 고양에 대한 근래의 비판적 논의는 김종명, 「‘호국불교’ 개념의 재검토」, 『불교연구』 17 (한국불교연구원, 2000); 김종만, 「호국불교의 반성적 고찰- 한국불교 전통에 대한 비판적 검토」, 『불교평론』 3 (불교평론사, 2000) 참조.

II. 신라의 호국불교 유형과 사례

한국 고대의 역사적 사실을 전하는 대표적 사서는 『三國史記』, 『三國遺事』로서 여기에 수록된 불교 관련 자료는 대부분 신라를 대상으로 하며 고구려, 백제에 대한 기사는 매우 소략한 편이다. 따라서 호국의 유형과 사례를 검토하는데 있어서도 삼국시대의 신라와 통일신라 불교를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 통일 이전의 신라 중고기에는 중앙집권화와 왕권 강화를 위해 정치적으로 불교를 적극 활용하였고, 그에 대한 연구도 호국불교의 차원보다는 국왕 및 국가권력이 불교를 어떻게 활용하고 대우하였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 결과 신라의 정치권은 세속적 목적을 위해 불교를 이용하였고 승단 또한 그에 부응했다는, 이념적 목적의 산물로서 이해하는 주장도 제기되었다.⁶⁾ 여기서는 기존 연구에 바탕을 두고 신라의 호국 사례를 불국도와 호국사찰, 호국법회와 의례, 호국신앙 등으로 유형화하여 각각의 사료적 근거와 구체적 내용을 정리해 본다.

1. 불국도와 호국사찰

신라의 불국토사상은 시기별로 과거불 인연설, 造塔 및 造像에의 반영, 眞身 상주신앙, 多佛신앙 등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7처 가람설, 皇龍寺 9층탑과 장륙상의 조성, 낙산과 오대산 신앙이 각각의 대표적 사례이며, 다불신앙은 현세의 신라국토가 불국토라는 인식에서 발전하여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부처가 존재한다는 대승적 불보살관으로 확대된 것이었다. 불국토사상은 불교 수용단계에서 토착 세력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불교를 정착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기능

6) 김종명, 앞의 논문; 김종만, 앞의 논문 참조.

을 담당하였고 왕권 강화의 주요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⁷⁾ 과거불 인연설과 관련된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玉龍集』, 『慈藏傳』 등 여러 전기에는 “신라의 月城 동쪽 龍宮 남쪽에 迦葉佛의 宴坐石이 있는데 이는 과거불 시대의 절터였고, 현재 황룡사 땅은 바로 그 7개 절터의 하나이다.”라고 되어있다. … 연좌석은 황룡사 불전의 뒤쪽에 있다. 전에 가서 보았는데 돌의 높이는 5-6척, 둘레는 3주(肘)로 우뚝 서 있으며 위는 편편하다. 眞興王이 절을 세운 뒤 두 차례나 화재가 나서 돌이 갈라지자 이에 쇠를 붙여 보호하였다.⁸⁾

眞骨과 聖骨 개념을 파생한 眞種설화도 신라가 불국토이며 신라 왕실은 석가모니의 가문과 마찬가지로 신성한 혈통을 가진다는 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불교를 정치이념으로 활용한 法興王에서 眞德女王까지의 신라 중고기에는 불교식 왕명을 사용하였고 진흥왕처럼 轉輪聖王을 추구하기도 했으며 진종설화를 통해 왕권의 신성한 권위를 높이려 하였다.

불국토 사상과 관련하여 황룡사, 四天王寺 등 국가적 사찰의 조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황룡사는 왕실이나 국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신라 최대의 사찰이자 百高座會가 행해진 곳이었다. 『삼국사기』에 “月城의 동쪽에 새 궁궐을 짓게 하였는데, 黃龍이 나타나자 왕이 기이하게 여기고 계획을 바꾸어서 절을 만들고 皇龍寺라 명하였다.”는 553년의 창건 기사가 나오는데,⁹⁾ 황룡사 9층탑, 장륙존상 등의 존재로 인해 호국불교의 거점사찰로 이해되어 왔다.¹⁰⁾ 또 사천왕사는

7) 申東河, 『新羅 佛國土思想의 展開樣相과 歷史的 意義』(서울대 國史學科 박사논문, 2000)

8) 『三國遺事』 권3, 塔像 제4 迦葉佛宴坐石

9)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 4 眞興王 14년(553) 2월

10) 李基白, 黃龍寺와 그 創建, 『新羅時代의 國家佛敎와 儒敎』(國學研究

明郎이 당나라 군대를 막기 위해 임시로 절을 짓고 文豆婁秘法을 써서 외침을 격퇴한 후 675년(문무왕 15) 건립되었다는 사원으로서¹¹⁾ 역시 신라의 대표적인 호국사찰로 꼽힌다.

2. 호국법회와 의례

신라에서 행해진 百高座會는 仁王會나 仁王道場이라고도 하며 국왕의 주관 하에 전국의 고승을 모아 『仁王般若經』을 강한 국가적 법회이다.¹²⁾ 『인왕경』은 법을 수호하는 국왕이 재난을 막고 국토를 지킨다는 내용의 護法사상을 담은 경전이지만,¹³⁾ 그에 기반한 백고좌회는 국가위기나 천재지변을 막고 국왕의 병을 고치는 호국적 기원법회로 이해되면서, 호법=호국의 등식이 강조되었다.¹⁴⁾ 나아가 신라의 국가체제 정비와 국가의식 고취를 위해 『인왕경』의 호국정신에 의거하여 국가의 안녕을 기원했다는 호국적 관점의 해석이 일반적이었다.¹⁵⁾ 다음은 사료에 보이는 백고좌회 설행에 대한 기록이다.

院, 1978)에서 장지훈, 「新羅 中古期の 護國佛教」, 『韓國史學報』 4 (1998)에 이르기까지 호국사찰로서 황룡사의 위상이 주목되었다.

- 11)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 7 文武王 19년(679) 8월
- 12) 정구복 외, 『譯註 三國史記』 4 주석편(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p.695. 『인왕경』 제5 護國品에는 국가의 재난을 막고 외적의 침입을 피하기 위해 국왕이 경전을 하루에 두 번씩 외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백고좌회 때는 불보살상 100개를 봉안하고 100명의 법사들이 사자좌에 앉아서 강경을 행하며 삼보 공양의 의식을 행하였다고 한다. 『삼국유사』 권4, 義解 제5 圓光西學조에는 百座道場으로 기재되어 있다.
- 13) 南東信, 「新羅 中古期 佛教治國策과 皇龍寺」, 『新羅文化祭學術論文集』 22 (皇龍寺의 綜合的 考察, 2001); 「三國統一과 思想界의 動向 -中代初 국가와 불교 교단의 관계를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研究』 23 (韓國古代史學會, 2001)
- 14) 金煥泰, 「新羅佛教 護國思想」, 『朴吉眞華甲紀念 韓國佛教思想史』 (원광대출판부, 1975)
- 15) 정병조, 「新羅法會儀式的 思想的 性格」,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 4 (1991)

隋의 사신 王世儀가 황룡사에 이르자 百高座(會)를 열었는데, 圓光 등의 법사를 초청하여 불경을 강설하였다.¹⁶⁾

황룡사에서 百座(백고좌회)를 열어 불경을 풀이하였다. 禪僧 3백 명에게 음식을 공양하고 대왕이 친히 향을 피워 불공을 드렸다. 이것이 백좌에서 선과 교를 함께 설행한 시초이다.¹⁷⁾

『인왕경』과 함께 호국 3부경의 하나로 손꼽히는 『金光明最勝王經』은¹⁸⁾ 5종의 한역본이 있는데 그 중 703년 義淨의 10권 본이 가장 늦게 번역되었다. 이 경전은 부처의 영원성과 四天王에 의한 호국의 기원 및 신앙이 주된 내용인데,¹⁹⁾ 『삼국사기』에는 의정이 한역한 다음 해인 704년 金思讓이 당에서 돌아오면서 『금광명최승왕경』을 바쳤다는 기록이 있다.²⁰⁾

한편 신라의 호국의례로 주목된 八關會는 551년(진흥왕 12) 僧統인 惠亮에 의해 처음 시작되었는데 이는 전쟁에서 죽은 이들의 혼령을 위로하는 위령제의 성격을 띠며 불교와 신라고유의 名山大川 龍神 신앙, 전통적 祭天의례가 습합된 국가의례였다. 다음 기사는 팔관회와 백고좌회의 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의 상황을 보여준다.

이때 惠亮법사가 무리를 거느리고 길가로 나왔다. 居柴夫가 말에서 내려 軍禮로 인사를 올리고는, “이전에 유학할 때 법사의 은혜로 생명을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연히 만나니 은혜를 어떻게 갚

- 16)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4 眞平王 35년(613) 7월
- 17) 『삼국유사』 권2, 紀異 제2 景哀王 즉위년(924) 2월 19일
- 18) 이재호, 『三國史記』 I (솔 출판사, 2006), p.313. 부처가 王舍城 靈鷲山에서 제자와 보살들에게 諸天 善神의 가호를 얻는 법을 가르친 경전이다.
- 19) 김상현, 「집일금광명경소-금광명최승왕경현추소인 원효소의 집편」, 『東洋學』 24 (단국대동양학연구소, 1994), p.260; 정구복 외, 『譯註 三國史記』 3 주석편(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p.261
- 20)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 8 聖德王 3년(704) 1월

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였다. 혜량은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가 어지러워 멸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를 그대의 나라로 데려가 주기 바랍니다.”라고 답하였다. 이에 함께 수레를 타고 돌아와 왕을 알현하니, 왕이 혜량을 僧統으로 삼았고 이때 비로소 百座講會와 八關의 법이 만들어졌다.²¹⁾

이후 572년(진흥왕 33) 10월 20일에 전물장병의 위령을 위해 外寺에서 7일간 팔관회가 개최되었다는 기록이 전한다.²²⁾

3. 호국신앙

신라의 호국신앙 사례는 토속신앙과 불교의 밀교적 신앙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奈林·穴禮·骨火 세 곳의 護國神인 세 남자가 金庾信을 구출했다는 설화는²³⁾ 전통적인 명산대천 신앙을 잘 보여준다. 이 三山은 『삼국사기』 祭祀志의 祀典 체계에 나오는 大祀의 대상으로서 가장 높은 위상을 가진 산이자 경주 주변 국가 수호신의 상주처였다.²⁴⁾ 다음 기사는 문무왕의 해중릉에 관한 설화인데 여기서도 신라의 용신 신앙과 호국의 염원을 볼 수 있다. 다만 문무왕이 호법과 호국을 내세워 추진한 일에 대해 당시 불교계는 용이 미물이라는 이유로 반대하였음을 볼 수 있다.

대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21년만인 永隆 2년(681)에 붕어하니, 유언을 따라 동해의 큰 바위에 장사지냈다. 왕이 평소 智義法師에게 이르기를 “짐은 죽은 뒤에 護國大龍이 되어 불법을 받들고 나라를 수호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법사가 말하기를, “용이란 畜生報인데 어

찌 그렇게 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나는 세상의 영화를 싫어한 지 오래이므로 만약 나쁜 응보를 받아 축생이 된다면 짐의 뜻에 합당하다.”고 하였다.²⁵⁾

신라에서 불교 호국신앙은 뒤에 神印宗으로 성립되는 밀교 계통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다음은 외침 격퇴를 기원하는 밀교적 호국신앙의 대표적 사례이다.

이보다 앞서 密本法師가 있었고 뒤에 고승 明郎이 나왔다. 龍宮에 들어가 神印(梵文에는 文豆婁라 함)을 얻었고 神遊林(지금의 天王寺)을 처음 세웠다. 여러 차례 이웃나라의 침입을 물리쳤다. 화상은 無畏三藏의 骨子를 전하여 사람을 구제하고 만물을 감화시켰으며 밝은 지혜로 사찰을 세우고 원망을 풀어주니 밀교의 교풍이 크게 떨쳐졌다.²⁶⁾

법사(명랑)는 선덕여왕 원년에 당에 들어갔다가 귀국하였다. 668년에 당나라 장수 李勣이 대병을 이끌고 신라와 합세해 고구려를 멸망시켰는데 후에 남은 군사를 백제에 머무르게 하면서 장차 신라를 공격하여 멸망시키고자 하였다. 신라인들이 이를 알고 병사를 내어 막으니 당의 고종이 그것을 듣고 크게 노하여 薛邦(薛仁貴)에게 명해 군대를 일으켜 치려 하였다. 문무왕이 이를 듣고 두려워하여 법사에게 秘法을 열어 물리쳐 달라고 청하였다. 이 일은 문무왕전에 실려 있다. 이로 인해 神印宗의 개조가 되었다.²⁷⁾

여기에 나오는 문두루는 일종의 수인으로서 『灌頂經』에 “만약 말세의 제자들이 위급한 재난을 만나면 五方神의 이름과 그 권속을 취해 등근 나무 위에 새겨라. 이를 문두루비법이라 한다.”고 되어있다.²⁸⁾

21) 『삼국사기』 권44, 列傳 제4 居柒夫, 진흥왕 12년(551)의 일이다.

22) 정구복 외, 앞의 책, p.695

23) 『삼국유사』 권1, 紀異 제1 金庾信

24) 정구복 외, 『역주 삼국사기』 4 주석편(하), p.17

25) 『삼국유사』 권2, 紀異 제2 文武王法敏

26) 『삼국유사』 권5, 神呪 제6 惠通降龍

27) 『삼국유사』 권5, 神呪 제6 明朗神印

한편 호국과 관련된 신라의 대표적 조직인 花郎徒는 香徒로 칭해졌고 미륵신앙과 직접 연결되었다.²⁹⁾ 특히 김유신의 화랑도 집단인 龍華 香徒는 미륵불을 신앙하는 낭도집단으로서 군사조직뿐 아니라 종교결사의 성격을 지녔다.³⁰⁾ 그밖에 호국을 위한 활동과 그 대표 인물로는 황룡사 9층탑과 관련된 진골 출신의 승통 慈藏, 수나라에 군대 동원을 요청하는 乞師表를 짓고 臨戰無退, 殺生有擇 등 전란기의 시대상황을 반영한 世俗五戒를 만든 圓光, 당의 신라 침공 정보를 알리려 귀국했다는 義湘, 그리고 암호문을 해독하여 고구려군의 공격에서 신라군을 구한 元曉의 일화 등 신라의 대표적 고승들과 그 활동에 주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라 3보로 알려진 황룡사 장륙상과 9층탑, 진평왕의 옥대도 왕권강화 및 호국인식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 태조 王建도 이 신라 3보에 특별히 관심을 가졌다고 하며,³¹⁾ 海印寺 護國三寶 戰亡縑素玉字에는 이를 호국삼보라고 명기하고 있는데,³²⁾ 신라 중고기 왕실의 왕권강화와 불국토사상, 호국사상의 발양을 위해 이 3보가 조성되었다고 이해하기도 한다.³³⁾

28) 文明大, 「신라 神印宗의 연구 -신라 밀교와 통일신라 사회-, 『震檀學報』 41 (진단학회, 1976)에서는 이를 수인만이 아니라 神王의 印으로도 추정하고 있다.

29) 三品彰英, 『新羅花郎の研究』 (三省堂, 1943), p.73; 金庠基, 「花郎과 彌勒信仰에 대하여」, 『李弘植回甲紀念韓國史學論叢』 (1969) 참조.

30) 金哲俊·崔柄憲, 『史料로 본 韓國文化史』 (일지사, 1986), p.197

31) 金相鉉, 新羅 三寶의 成立과 그 意義, 『東國史學』 14 (1980)

32) 海印寺護國三寶戰亡縑素玉字 (895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에는 ‘乾寧濁世於海印寺護國三寶戰亡縑素玉字列之如左’라고 되어 있다.

33) 丁仲煥, 「新羅聖骨考」, 『李弘植博士華甲紀念韓國史學論叢』 (1973). 이 신라3보가 불법승 삼보에서 연유했다는 설도 있다.

III. 고려와 조선전기의 호국사례와 인식

고려는 왕실과 귀족, 일반민 등 전 계층이 불교를 신앙하는 불교국가였고 이는 官制와 유사한 형태의 僧錄司, 僧科, 僧階 제도를 비롯해 동일한 포상 및 처벌 규정이 적용된 僧制의 운영에서도 알 수 있다. 승불군주인 고려 태조 왕건은 불교를 통해 국가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였는데, 이는 「訓要十條」에서 확인된다. 제1조에는 “우리 국가의 大業은 諸佛의 護衛하는 힘에 의지하였다. 그러므로 禪敎 사원을 중창하고 주지를 보내 그 업을 닦도록 한다.”고 명시하였고, 제2조에서는 사원의 위치가 國祚의 흥륭과 관련되어 있다는 裨補寺塔의 관념이 표명되고 있다.³⁴⁾ 또 제6조에서는 燃燈會와 八關會의 지속적 거행을 당부한 것으로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또한 왕건은 앞서 후삼국을 통일한 후 念山에 開泰寺를 창건하였는데 그 발원문에서 부처와 신령의 은덕으로 전쟁에 승리하였음을 밝혔고 불교에 의지하여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기원하고 있다.³⁵⁾

고려시대에는 북방 유목민족의 잦은 침략이 있었고 승려나 僧軍이 국가 수호와 내우외환을 극복하기 위해 전쟁에 직접 참전한 사례가 다수 보인다. 먼저 1010년(현종 1) 거란이 쳐들어 왔을 때 東北界都巡檢使 卓思政과 승려 法言이 군사 9천명을 이끌고 林原驛 남쪽에서 거란군과 맞서 싸워 2,000여 적병을 참수하고 적을 물리쳤다는 기록이 전한다.³⁶⁾ 또 1104년(숙종 9)에는 尹瓘이 여진정벌을 위한 別武班을 설치하였는데 승도를 선발하여 구성한 降魔軍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당시 사원에 소속되어 노역에 종사한 隨院僧徒 출신으로서 국가에서 군대를 일으킬 때 각지 사찰의 수원승도들을 동

34) 『高麗史』 世家 2, 太祖 26년 4월조

35) 『東人之文四六』 권8, 「開泰寺華嚴法會疏」

36) 『고려사』 권94, 智蔡文傳

원하여 종군케 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³⁷⁾ 1217년(고종 4)에는 몽고군에 밀려서 내려온 거란군에 맞서 楊廣道, 忠淸道の 병력과 승군이 힘을 합쳐 막아내었다.³⁸⁾ 이후 30년간에 걸친 대몽항쟁기에도 승려 출신 金允侯가 용인 處仁城에서 몽고군을 맞이하여 적장 살리타(撒禮塔)를 죽이고 1253년(고종 40)에는 충주 防護別監 郎將을 맡으면서 2개월에 걸쳐 몽고군과 항쟁하여 승리를 이끄는 등 치적을 쌓았다.³⁹⁾ 그는 이러한 공적으로 東北面兵馬使에 임명되었고 樞密院 副使를 제수받기도 했다. 고려 말의 紅巾賊이나 倭寇의 잦은 침입 때도 승군이 종군하여 군공을 세웠다는 기사가 『高麗史』 등에서 다수 확인된다.⁴⁰⁾

한편 고려에서는 다양한 불교의례가 국가 차원의 의례로 거행되었다. 『仁王經』을 강설하는 인왕도량 등을 비롯한 鎮護國家 도량, 華嚴 神衆이나 帝釋, 龍王 등을 위한 神衆 도량이 개설되었고 祈雨, 祈請을 위한 의례, 鎮兵 및 호국을 위한 법회가 개설되었다. 특히 대표적인 국가의례로서 燃燈會, 八關會가 정기적으로 설행되었다. 연등회는 2월 14일과 15일의 上元에 열리는 상원연등회가 국가적 행사로 행해졌고 이때 奉恩寺의 태조 眞殿에서 국왕이 제사를 올린 후 군신간의 연회가 베풀어졌다. 11월 15일에 開京에서 열린 팔관회는 하늘의 신령과 五嶽, 名山大川 및 龍神을 모시는 등 전통적 신앙의 유풍이 지속된 것으로, 각 지역 대표자들을 불러놓고 국왕의 권위와 고려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는 국가적 의례였다. 팔관회 때는 국왕 혼자 儀鳳樓에서 태조 영전에 진헌하였고 연회를 연 후 고승을 초빙하여 민심 안정과 대외관계의 평안을 비는 법회를 열었다.⁴¹⁾

37) 『고려사』 권81, 兵志 兵制

38) 『고려사』 권22, 高宗 4년 5월 갑신

39) 『고려사』 권103, 金允侯傳; 『高麗史節要』 고종 40년 12월 조

40) 金德洙, 『壬辰倭亂과 佛教義僧軍』 (경서원, 1993), pp.129-133

41) 강호선, 『불교사상과 신앙의 사회화』, 『신앙과 사상으로 본 불교전통의 흐름』 (두산동아, 2007), pp.198-204

대표적 호국경전인 『인왕경』, 『금광명경』에 의거한 진호도량도 국가적 행사로 열렸는데 특히 인왕도량에 대한 기록이 다수 확인된다. 『高麗史』에서는 고려가 불교에 의지하여 국기를 수호하였는데 『인왕 반야경』은 護國安民을 위한 最勝의 法文이라고 기술하였고,⁴²⁾ 『宋史』에서는 “고려 국왕이 행차할 때 소가 끄는 수레를 닦고 험한 산을 넘을 때는 말을 탔는데 붉은 옷을 입은 시봉하는 자가 앞에 서서 『호국 인왕경』으로 인도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⁴³⁾ 거란의 침입으로 고난을 겪었던 현종대에는 『인왕경』을 강경하는 인왕도량이 궁궐 내에서 열렸고 이후 원간섭기까지 百座仁王經 도량이 매년 9월이나 10월에 국가행사로 정례화 되어 시행되었다.⁴⁴⁾ 大覺國師 義天(1055-1101) 또한 친형인 숙종이 『인왕호국반야경』에 주석을 쓰고 인쇄, 유포하려 했음을 기록하고 있다.⁴⁵⁾

한편 고려 왕실은 신라 이래의 전통적 호국신앙을 수용하여 궁궐 내에 ‘北帝天兵護國道場’을 설하였다.⁴⁶⁾ 妙淸이 국왕을 설득하여 林原宮城을 조성할 때도 궁 안에 八聖堂을 설치하였는데 첫 번째로 모셔진 것이 ‘護國白頭嶽太白仙人, 實德文殊師利菩薩’이었고 두 번째가 ‘龍圍嶽六通尊者, 實德釋迦佛’, 네 번째가 ‘駒麗平壤仙人, 實德燃燈佛’의 조형이었다.⁴⁷⁾ 이처럼 전통적 호국신과 불보살이 결합된 형태의 호국신앙과 불교의 습합이 고려왕실에서 관례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42) 『고려사』 권26, 세가 제26, 元宗 5년(1264) 7월 27일. “自祖聖以來 全仗 佛敎 密護延基 夫仁王般若 偏爲護國安民 最勝法文”

43) 『宋史』 권487, 外國列傳 제246 高麗

44) 김형우, 『고려시대 국가적 불교행사에 대한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992), p.48

45) 『大覺國師文集』 권10, 上淨源法師書 2

46) 『고려사』 권41, 세가 제41, 恭愍王 15년(1366) 11월 22일

47) 『고려사』 권127, 列傳 40 叛逆, 妙淸. “妙淸又說王 築林原宮城 置八聖堂 于宮中 八聖 一曰護國白頭嶽太白仙人 實德文殊師利菩薩 二曰龍圍嶽六通尊者 實德釋迦佛 三曰月城嶽天仙 實德大辨天神 四曰駒麗平壤仙人 實德燃燈佛 五曰駒麗木覓仙人 實德毗婆尸佛 六曰松嶽震土居士 實德金剛索菩薩 七曰甌城嶽神人 實德勒叉天王 八曰頭嶽天女 實德不動優婆夷 皆繪像”

호국신앙의 주된 목표는 국가적 재난과 외침 극복을 기원하는 것으로,⁴⁸⁾ 몽고와의 30년 전쟁을 겪으면서 갖가지 鎭兵의식이 자주 행해졌다. 1257년(고종 44)의 기록에는 “계책이 더 나올 것이 없으니 다만 佛宇와 神祠에 기도할 뿐이다.”라고 절박함을 표출하고 있는데,⁴⁹⁾ 다음 글도 호국신명의 영험을 간절히 기원하는 내용이다.

을 해에도 큰 군사가 쳐들어와 국토를 유린하니 우리 형세가 곤궁해져서 어찌 할 줄 모르며 근래 사람과 가축의 피해는 이루다 말할 수 없어 가족 간에도 서로 돕지 못하고 굶주린 이들이 곳곳에 가득한데 나라의 형세가 어찌 위태롭지 않겠는가? 護國神明의 위엄과 영험이 오늘날에 떨쳐지지 않는다면 다시 어느 때를 기다릴 것인가?⁵⁰⁾

1231년부터 1259년까지 이어진 대몽항쟁기에는 국난극복을 기원하는 다양한 의식과 불사가 행해졌는데 그 중 특기할 만한 것은 대장경의 조성이다. 고려는 앞서 1101년의 거란 침공 때부터 외적을 물리치려는 발원을 통해 초조대장경을 조성하기 시작하였고, 몽고 침략의 와중에 대구 符仁寺의 초조대장경이 불에 타자 재조대장경을 재차 인각하였다. 다음은 재조대장경을 조성할 때 불교의 護國安民 전통을 강조하면서 국난극복을 기원한 李奎報의 글이다.

국왕은 문무백관 등과 목욕재계하고 諸佛菩薩과 帝釋天을 수반으로 한 33天 일체 護法靈官에게 고합니다. 몽고가 환란을 일으켰는데 그 잔인하고 흉포함을 이루 다 말할 수 없고, 어리석고 혼미함은 금수

48) 圓鑑 沖止의 『圓鑑錄』 疏, 「祝大駕消災仁王千手智論四種法席疏」에는 ‘或誦念消災之妙諦 或諷宣護國之靈詮’라고 하여 재역의 방비와 호국을 기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49) 『고려사』 권24, 세가 제24, 고종 44년 7월 무자

50) 『고려사』 권24, 세가 제24, 고종 41년 12월 16일

보다 심하니 어찌 천하의 공경하는 바를 알겠으며 佛法이라는 것이 있겠사옵니까? 그들은 지나가는 곳마다 佛像과 梵書를 마구 불태웠고 符仁寺의 大藏經 판본까지 모조리 태워버렸습니다. 여러 해의 공적이 하루아침에 재가 되었고 佛乘을 보호하지 못하여 나라의 큰 보배가 상실되었습니다. … 국가가 불법을 존중해 받들었지만 이처럼 큰 보배가 없어졌으니 역사가 거창하다고 해도 어찌 고쳐 만드는 일을 꺼려하겠습니까? 이제 크나큰 서원을 발하여 일을 경영케 되었는데, 처음 시작해 만든 동기를 살폈더니 현종 2년에 거란이 군사를 일으켜 침략했을 때 대장경을 판각하자 거란 군대가 스스로 물러갔습니다. 어찌 그때만 물러가고 지금 몽고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직 諸佛聖賢과 33천이 어떻게 보살피 주시는 지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간곡히 기원하는 바를 살피시어神通한 힘을 빌려 주시고 완악한 오랑캐가 멀리 도망쳐 다시는 국토를 밟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전쟁이 그쳐서 안과 밖이 편안하고 나라의 국운이 만세토록 유지될 수 있다면, 더욱 노력하여 법문을 보호하고 부처님의 은혜를 만분의 일이나마 갚으려 합니다.⁵¹⁾

고려불교의 호국 전통은 이처럼 다양한 방면에서 확인되며 불교를 통한 국난극복의 염원과 실천은 고려인들의 의식과 행위에 녹아있었다. 知訥의 적전제자 眞覺 慧諶도 “禪의 도는 나라의 복운을 연장케 하고 지혜의 경론은 이웃나라 군대를 막아준다.”고 한 바 있다.⁵²⁾ 하지만 원간섭기에 접어들면 고려의 전통을 담은 의례나 제도는 축소되거나 변질되었다. 일례로 談禪法會는 태조 때부터 시작된 오랜 전통으로 선의 유포와 국난극복을 추구하는 국가적 행사였는데, 충렬왕대에 원의 압력에 의해 중단되었다.⁵³⁾ 한편 원의 불교가 고려에 영향을 미치면서 많은 변화들이 생겼는데 그 중 선종 규범서 『勅修百丈

51) 『東國李相國集』 권25, 雜著 大藏刻板君臣祈告文 정유년(1237)

52) 『禪門拈頌拈頌說話會本』, 『禪門拈頌集序』 (『韓國佛教全書』 5, p.1)

53) 『고려사』 권28, 세가 28, 忠烈王 4년(1278) 3월; 6월 26일; 세가 29, 충렬왕 6년(1280) 3월 27일

清規』가 수용된 의미에 대해 재론할 필요가 있다. 『척수백장청규』는 국가제도에 의한 사찰운영이나 황제에 대한 祝釐를 강조하는 등 송대에 만들어진 『禪院清規』에 비해 국가불교적 성격이 한층 강화된 것이었다.⁵⁴⁾ 이 책의 도입을 주도한 태고 보우의 글에서도 국왕이 護法을 통해 護國과 護人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글의 맥락과 시대적 의미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⁵⁵⁾

고려를 이어 조선이 개창되면서 유교국가를 표방하였지만, 조선전기까지는 불교를 비롯한 고려적 유제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명맥을 이어갔다. 전통신앙 중에서 名山大川이나 城隍 신앙 등은 이 시기에 존속하였고 점차 국가의 유교적 예제에 흡수, 편제되었지만 護國伯이나 호국 신으로 지정된 전통적 神格은 여전히 유지되었다. 다만 다음 두 기사는 국초에 호국의 명칭을 지정한 후에 세종대에 호국의 두 글자를 삭제하였다는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吏曹에서 名山·大川·城隍·海島의 神을 봉하기를 청하니, 松岳의 성황은 鎮國公이라 하고, 和寧·安邊·完山の 성황은 啓國伯이라 하고, 智異山·無等山·錦城山·鷄籠山·紺嶽山·三角山·白嶽의 여러 산과 晉州의 성황은 護國伯이라 하고, 그 나머지는 護國의 神이라 하였으니, 禮曹에 명하여 상정하였다.⁵⁶⁾

예조에서 嶽·海·瀆·山川의 壇廟와 神祇의 제도를 상정하였다. 海豐郡의 白馬山은 단의 위판에 白馬護國之神이라고 썼는데, 호국 두 글자는 삭제하게 한다.⁵⁷⁾

54) 강호선, 「고려말 禪僧의 入元遊歷과 元 清規의 수용」, 『韓國思想史學』 40 (한국사상사학회, 2012)

55) 『太古和尚語錄』. “至正十六年丙申三月初六日玄陵爲大元皇帝請師於奉恩禪寺入院別祝聖上堂. 門下侍中李相國齊賢 度疏與師 師接得 呈示大衆云 還知國王 護持正法 護國護人 入善知衆藝三昧否”

56) 『太祖實錄』 권3, 태조 2년(1393) 1월 21일(경묘)

57) 『世宗實錄』 권76, 세종 19년(1437) 3월 13일(계묘)

한편 불교계에서는 국왕과 부처를 연결시킨 호국 관념이 지속되었는데 이는 불교가 국왕권 강화와 국가의 안정을 위해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의 반영이었다. 禪教兩宗이 복립된 16세기 중반 명종대의 虛應 普雨가 쓴 글에서는 국왕의 지극한 호국의 뜻을 축원하면서 이를 부처의 중생 구제의 서원과 연결시켜 如來가 곧 聖烈이고 군주가 곧 부처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⁵⁸⁾ 즉 백성과 중생을 위한 군주의 지혜와 부처의 서원은 다르지 않으며 지금의 군주는 곧 과거의 부처이므로 ‘護世’의 큰 서원을 마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국가에 충성을 다하는 이들은 군주를 마음에 두어 호국을 이루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조선후기에도 부처와 梵神이 同體의 대비심을 가지고 있어 호국 안민을 이루고 왕실의 번영과 신민의 평안을 기원한다는 내용의 글이 보인다.⁵⁹⁾ 또한 근대의 일이지만 일본군의 지방 출정에 백성들이 두려워 흩어졌고 이에 승려 또한 왕의 백성이기에 나라의 평안을 기원하고 호국안민의 신에 전화위복을 염원하는 기록이 확인된다.⁶⁰⁾

58) 虛應普雨(?-1565), 『懶庵雜著』 寫經跋, “使我聖上 以金剛無我之大智 入長壽滅罪之要門 爲十二大將之所擁護 得九天之降祥 以應聖母 抱送元子之振振 則我聖烈殿下 祝君護國之至意 奚啻如醫之心切於活人 佛之願全於度生也歟 以如來之願 想聖烈之情 情願未嘗有異 以聖烈之行 較如來之行事 未嘗不同 而如來即聖烈 聖烈即如來也 如來即過去之聖烈 聖烈即現在之如來 古今相符 遠近相照 可謂畢護世之大願也 … 後之忠國之士 當以聖烈爲心 則其於護國 可庶幾云爾歟”

59) 月渚道安(1638-1715), 『月渚堂大師集』 下 「天龍壇疏」, “衛生靈之塗炭 釋梵神 同體之悲 仰儲副之降生 王臣民舉國之願 感既鏡對 應必像生 恭惟大梵天王 帝釋天王 護世四王 密跡金剛等 諸大神祇 位列天宮 身臨佛地 三千界 十方刹 盡一乾坤 七趣生 四聖師 皆歸造化 安民護國 總在掌中 縛妖除兇 咸入度內 顧余邦國 念茲生成 儲君誕生 偏所望也 臣民安泰 更可願也 肆就精廬 聊陳梵采 層層燈焰 照破昏妖 穆穆神祇 奔馳左右 么麼懇禱 利那感通 伏願主上殿下 速誕元良 永膺無疆之慶 重興國步 坐致太平之治 和氣格而百穀皆登 美化行而四方無侮 抑願己身等 去九橫而致五福 福又福之無窮 除六極而享百年 年復年之不盡”

60) 海雲致益(1862-1942), 『曾谷集』 爲祝記通度寺, “歲在青馬 榴月二十一日也 日本兵士九百餘人 驅入本郡西南路 留宿曲浦津而過之 連踵隨後者 往往數千故 人民懼怯流散者 太半 一境騷擾 四海涌沸 實所危急 此將奈何

IV. 조선후기 승군활동과 충의의 시대성

1592년(선조 25)부터 1598년까지 7년간 지속된 壬辰倭亂은 불교계에 막대한 인적, 경제적 손실과 수행기풍의 퇴조 등 큰 피해를 가져왔다. 반면 僧軍 활동과 충의의 공적을 통해 불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위상이 제고되고 승려 노동력의 효용성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선조는 1592년 7월 淸虛 休靜(1520-1604)에게 八道十六宗 都總攝의 직책을 수여하고 국가의 위기를 맞아 僧軍을 동원토록 하였다.⁶¹⁾ 휴정은 선조에게 “늙고 병들어 나설 수 없는 승려들은 각자 수행하며 신령의 도움을 기원하게 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종군할 것입니다. 신 등은 이 나라에 태어나 성상의 은혜와 훈육을 받았는데 어찌 한 번 죽음을 아끼겠습니까? 목숨을 바쳐 충심을 다 하겠습니다.”라고 답하였다 한다.⁶²⁾ 휴정은 전국 사찰에 쉼기문을 띄워 5천여 승군을 소집하였는데,⁶³⁾ 황해도의 義嚴, 관동의 四溟 惟政, 호남의 雷默 處英 등 각지의 승장들이 승군을 이끌었다.⁶⁴⁾

8월 충청도의 騎虛 靈奎와 8백여 승군이 의병장 趙憲이 이끄는 7백의병과 함께 金山에서 싸우다 전사하였다. 이 사건은 승군의 충의와 전투력에 대한 조야의 신뢰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⁶⁵⁾ 이후 승군

地是率土 僧亦王民 渾寺諸僧 一齊聚會 爲國安平之意 齊進于釋迦如來頂骨舍利金剛戒塔之左 別設七星壇 并用矢心 自七月二日 至于八日 齊聲爲祝曰 伏願七星如來 處天宮而洞察下界 循地而恒居上方 特垂朗鑑 曲照丹忱 扶金甌而恒安 掃烽塵而頓息 如是七日七夜 一心不亂 那無轉禍爲福之慶 必有護國安民之神”

61) 高橋亨, 『李朝佛教』(寶文館, 1929), p.374. 휴정은 앞서 1589년 鄭汝立 역모 사건 때 추국을 받았는데 무죄로 방면되면서 선조로부터 詩句와 墨竹 한 폭을 하사받았다(『선조수정실록』 권24, 선조 23년 1월 1일(갑진)).

62) 『大東野乘』 권36, 『再造藩邦志』 20

63) 『鞭羊堂集』 권2, 『西山行蹟草』(『한국불교전서』 8, pp.254-255)

64) 『선조수정실록』 권26, 선조 25년 7월 1일(무오)

은 平壤城과 幸州山城 전투에 직접 참전하여 전공을 세웠고,⁶⁶⁾ 漢陽에 돌아올 때 선조를 호위하였으며 군량 보급, 山城 축조 및 수호의 임무 등을 맡았다.⁶⁷⁾ 한편 全州에 있던 實錄과 중요 기록물, 태조의 畫像 등도 강화나 해주, 의주 등을 거쳐 묘향산으로 옮겨졌고 승직을 수여받은 승려가 그 수호를 담당하였다.⁶⁸⁾

휴정의 수제자인 유정은 임진왜란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충의의 승려로 명성을 떨쳤다. 유정은 스승을 대신하여 전투를 독려했고 산성축조와 군량조달 등에서도 큰 역할을 하였다. 특히 일본과의 강화교섭 과정에 참여하였고 정세 분석과 대비책 주달도 담당하였다.⁶⁹⁾ 전후에는 조정을 대표하여 일본에 사신으로 파견되어 國交 재개와 포로 쇄환 문제 등을 논의하였고,⁷⁰⁾ 이러한 유정의 공은 당대에 높이 평가되어 禪敎兩宗判事 직책과 정3품 堂上官 僉知中樞府事를 제수 받았다.⁷¹⁾ 그 밖에도 中觀 海眼, 奇巖 法堅, 逍遙 太能, 青梅 印悟 등

65) 『선조실록』 권29, 선조 25년 8월 26일(계축)의 비변사 보고에서도 승려 靈奎의 활약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66) 安啓賢, 『朝鮮前期의 僧軍』, 『東方學志』 13 (1972) 참조.

67) 『선조실록』 권48, 선조 27년 2월 20일(기사)에는 유정과 경상우도 총섭 信悅 등이 보리를 심어 군량에 대비하였고 무기를 생산하고 火砲를 교습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68) 『선조실록』 권53, 선조 27년 7월 20일(병신); 권82, 선조 29년 11월 7일(기해), 권115, 선조 32년 7월 8일(을묘); 『선조수정실록』 권26, 선조 25년 7월 1일(무오). 春秋館과 承政院의 日記 등 여러 문서들이 정유재란 때 普賢寺에 옮겨졌다.

69) 『奮忠紓難錄』, 『甲午九月馳進京師上疏言討賊保民事疏』(『한국불교전서』 8, pp.90-93)는 승군을 모아 활동한 내용과 정세분석, 保國策略이 주된 내용이다. 또 『乙未上疏言事』에서는 民力을 키우고 人事에 힘을 쓸 것을 주장하였다. 『선조실록』 권87, 선조 30년 4월 13일(계유)에는 적진 탐색과 외교에 관한 내용인 『丁酉疏』가 기재되어 있다.

70) 불교국가인 일본과의 외교에는 휴정과 유정의 서신이 활용되었는데 유정이 외교적 중임을 맡게 된 것도 휴정의 서신이 매개가 되었다. 『선조실록』 권146, 선조 35년 2월 3일(병인); 권152, 선조 35년 7월 20일(기묘); 권172, 선조 37년 3월 14일(갑자); 『光海君日記』 권35, 광해군 2년 11월 12일(계축)

71) 『선조실록』 권36, 선조 26년 3월 27일(임오); 권37, 선조 26년 4월 12일

다수의 승장들이 휴정 문하에서 배출되었다.⁷²⁾

반면 병화와 약탈, 사찰의 소진과 토지 황폐화로 인해 사원의 재정 기반이 위축되고 승군 활동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도 가중되는 등⁷³⁾ 인적·재정적 타격이 적지 않았다. 이에 승군 활동이 승려 본분에 어긋나며 수행에 전념하지 못하는 현실이 큰 문제라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휴정의 제자 靜觀 一禪은 “말법이 쇠하고 세상이 어지러워 백성이 안도하지 못하며 승려 또한 편히 머물지 못한다. 적의 잔해와 사람의 노고를 이루 다 말할 수 없는데 더욱 슬픈 일은 승려가 속옷을 입고 중군하면서 죽거나 도망치는 것이다. 또 출가의 뜻을 잊고 계율 실천을 폐하며 허명을 바라고 돌아오지 않으니 선풍이 장차 멈춰질 것이다.”라고 하여 승군활동의 현실적 폐해를 개탄하였다.⁷⁴⁾ 실제로 공을 세워 직책을 받은 승려들 중 전후에 환속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⁷⁵⁾ 청매 인오도 “慘狀과 干戈가 날로 심하고 부역이 해마다 더욱 압박하여 남북으로 갈리니 산중에 희비가 끊어져 痛病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토로하였다.⁷⁶⁾

이후 인조대에 後金の 침입과 같은 유사시를 대비하여 한강 남쪽 南漢山에 산성을 축조하였는데 축성공사는 八道都總攝으로 임명된 碧巖 覺性(1575-1660)의 주관 하에 주로 三南의 승려가 동원되었다. 1626년에 완성된 남한산성 내에는 9개의 사찰이 조영되었고 승군이 주둔하며 수호를 담당하였다.⁷⁷⁾ 또한 승군의 노동력 활용뿐 아니라

(병신); 권57, 선조 27년 11월 1일(기사)

72) 이들의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김용태, 임진왜란 의승군 활동과 그 불교사적 의미, 『보조사상』 37 (보조사상연구원, 2012) 참조.

73) 예를 들어 『선조실록』 권49, 선조 27년 3월 1일(기묘)에 의하면 충청도 사찰 40여 곳의 位田이 쓸모없는 空閑地가 되었고 간사한 이들에게 점유당하여 수확한 곡식을 모두 개인이 차지하였다고 하여 몇 해 만이라도 訓練都監에 귀속시켜 군대의 식량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74) 『靜觀集』, 上都大將年兄, (『한국불교전서』 8, pp.30-31)

75) 『奮忠紓難錄』, 「乙未罷兵後備邊司啓」 (『한국불교전서』 8, p.97)

76) 『青梅集』, 悼世, (『한국불교전서』 8, p.150)

군사적 기능도 계승되었는데, 1627년 丁卯胡亂 때는 虛白 明照가 八道義僧都大將이 되어 4천여 승군을 평안도에서 일으켰고,⁷⁸⁾ 1636년 丙子胡亂 때는 벽암 각성이 삼남의 승군 3천을 전라도에서 모아 降魔軍을 조직하기도 하였다.⁷⁹⁾ 이처럼 국가적 위기에 맞서 싸운 승군의 활약은 불교가 조선후기에 존립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또한 임진왜란 때는 都總攝과 각 도의 總攝을 備邊司에서 임명, 관리하였고 임시방편으로 僧職과 度牒 등을 수여하였는데,⁸⁰⁾ 이후 승군과 승려 노동력을 활용하고 도첩이나 호패를 지급하는 공리적 방안이 시행되었다. 즉 노동력 활용과 그에 대한 승려 자격의 용인이 관례화된 것으로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승려로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다.⁸¹⁾

17세기 전반은 전란의 피해 때문에 불교의 종교적 효용성이 크게 부각된 시기이기도 했다. 불교계는 법회와 기도를 통해 국왕과 왕실의 장수와 안녕을 빌고 국가와 민의 안정을 기원하였다.⁸²⁾ 이와 함께

77) 總攝 1인, 中軍 1인이 통솔하는 주둔 승군은 138명이었고 교대 승려는 356명으로서 평안, 함경을 제외한 경기, 강원, 황해와 삼남에서 매년 6번 입역하였다고 한다(『南漢志』 67, p.87).

78) 『虛白集』 「虛白堂詩集序」 (『한국불교전서』 8, pp.379-380)

79) 김용태, 「조선후기 華嚴寺의 역사와 浮休系 전통」, 『지방사와 지방문화』 12-1 (역사문화학회, 2009). 한편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청과 교전 중일 때 승려 斗淸이 有旨를 들고 나갔으며[『인조실록』 권34, 인조 15년 1월 15(을묘)], 묘향산 출신의 獨步(호는 麗忠)는 병자호란 후 海路로 비밀리에 명의 都督府에 가서 조선의 상황을 설명하고 청을 협공하자는 咨文을 가지고 오기도 하였다(『인조실록』 권42, 인조 19년 8월 25일(무진)).

80) 『선조실록』 권41, 선조 26년 8월 7일(무자); 『선조실록』 권74, 선조 29년 4월 17일(계축)

81) 당시 號牌廳에서는 새로 출가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經國大典』의 도첩 규정대로 시행한다는 것을 事目 안에 고쳐 표시하였는데[『광해군일기』 권35, 광해군 2년 11월 12일(계축)], 이는 도첩 수여가 제도적으로 관례화 된 것을 의미한다.

82) 伊吹敦 저·최연식 역, 『새롭게 다시 쓰는 중국 禪의 역사』 (대숲바람, 2005), pp.146-147과 pp.212-213에 의하면 중국에서는 송대에 국가불교적 성격이 강화되어 황제의 장수와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祝聖上堂과

수많은 전몰 혼령을 위로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연고 없이 죽은 無主孤魂의 명복과 왕생을 기원하는 薦度齋와 水陸齋가 빈번히 열렸다.⁸³⁾ 당시 野葬과 醮祭 후 원혼 구제를 위해 수륙제가 개설된 사실 등이 기록에서 확인된다.⁸⁴⁾ 또한 전쟁 중 서울 안팎의 시체를 묻는데 승려가 동원되었고 그 대가로 선과첩과 도첩이 주어졌다.⁸⁵⁾ 이처럼 민심 위무의 역할 외에도 파괴된 다리와 도로 재건, 궁궐 조영 등 전후 복구사업에 승려들이 참여하였고 전쟁은 불교의 종교적 기능을 새롭게 환기시키고 신앙 수요를 창출하는 계기이기도 했다.

이와 같이 국가적 위기를 맞아 士林의 의병 활동에 비해 손색이 없는 충의의 공적을 승려들이 세운 것은 당대는 물론 후대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왕을 위한 충의와 근왕의 공적을 내세워 ‘세상을 구하기 위해 叢林을 움직인’ 자부심이 교계에서 표명되었고,⁸⁶⁾ 불교가 ‘濟世安民’과 ‘福民佑世’에 도움이 된다는 자부심이 표출되기도 했다.⁸⁷⁾ 충, 효의 윤리적 흠결과 국가적 폐해 등의 이유로 줄곧 비난받아 온 불교는 그러한 비판 논리를 극복하고 당당히 사회적 지분을 주장할

본존불 앞의 三牌 봉안이 시행되었고 원대에 이러한 경향이 더 심화되었다고 한다.

83) 南希叔, 『朝鮮後期 佛書刊行 研究-眞言集과 佛教儀式集을 中心으로』(서울대 國史學科 博士論文, 2004)에서는 17세기의 국가적 위기 상황이 불교의 종교적 대응과 대중화를 이루는 역사적 배경이었다고 본다.

84) 『浮休堂大師集』 권5, 薦戰死亡靈疏, (『한국불교전서』 8, p.82). 『부휴당 대사집』에는 수륙제나 薦度齋 관련 疏文이 몇 건 수록되어 있고 『四溟堂大師集』, 『奇巖集』 등 당시 승려 문집에서 ‘無主孤魂’의 왕생을 기원하는 글들이 확인된다. 중국에서도 明末 萬曆 연간에 비명 횡사자의 영혼을 위로하는 수륙회가 활성화되었다고 한다(伊吹敦 저·최연식 역, 앞의 책, p.236).

85) 『선조실록』 권43, 선조 26년 10월 2일(임오); 『선조수정실록』 권27, 선조 26년 10월 1일(신사)

86) 『青梅集』 권하, 「爲松雲大師疏」; 「松雲大師祭文」; 「跋」, (『한국불교전서』 8, pp.152-156)

87) 『奇巖集』 권3, 「表訓寺海會堂勸善文」; 「長安寺重創勸善文」; 「金剛山長安寺法堂造成勸善文」, (『한국불교전서』 8, pp.176-181)

수 있게 되었다. 18세기에는 휴정과 유정 등을 향사하는 사당이 국가 공인 賜額祠로 지정되었는데, 1738년 밀양의 表忠祠, 1789년 해남 大菴寺의 표충사, 1794년 묘향산 酬忠祠가 사액되었고 공식 향사가 이루어졌다. 승려의 향사를 용인한 정조는 “불교는 慈悲가 중요한데 휴정은 그에 부끄럽지 않아 人天의 眼目이 되었다. 宗風을 발현하고 國難을 弘濟하니 勤王의 元勳이며 上乘의 教主이다. 속세를 구제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불교의 자비이다.”라고 하여,⁸⁸⁾ 휴정의 업적을 치하하면서 불교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처럼 국난을 맞아 크나큰 공적을 세운 승군 활동은 불교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인식을 상당히 불식시켰고 충의의 시대성 발현은 조선후기 불교 존립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V. 맺음말

전통시대의 국가는 곧 국왕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민은 국왕의 신민일 뿐이지 국가와 동격이 될 수 없었다. 治世와 爲民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국왕이었고 민은 국왕에 대한 충성의 의무를 다해야만 했다. 국민이라는 용어 자체가 민이 국가와 동격이 된 근대 이후의 산물임을 고려하면, 전통시대 호국 개념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즉 전 근대기에 호국의 국은 근대적 의미의 국가나 민족, 더욱이 국민은 아니며 국왕, 또는 그에 준하는 국체에 해당한다. 실제로 사료에 나타난 사례들은 대개 국왕=국가였고, 유교적 가치가 정착된 조선후기의 경우 국왕을 위한 충의의 발현으로 ‘勤王’이 특히 강조되었다.

88) 『淸虛堂集』 補遺, 正宗大王御製西山大師畫像堂銘并序, (1794) (『한국불교전서』 7, pp.735-736)

호국, 또는 호국불교가 시대담론으로 급격히 부상한 것은 1930년대 후반부터 1940년대 전반까지 전시체제기였고 당시 호국의 국은 일본의 국체인 천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근대 일본의 국가불교, 황도불교 노선을 그대로 답습한 식민지 조선에서 호국불교의 강조는 일본에 정치적으로 종속된 체제불교의 성격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후 친일불교 또는 식민지 유산에 대한 청산이나 학술적 비판 없이 식민지기에 대두한 호국불교 개념이 존속하였다. 더욱이 1970년대의 국수적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의 발현 하에서 호국불교의 유구한 전통은 크게 각광받았다. 즉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여해온 불교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과시하고 유구한 민족사의 한 축을 담당한 전통종교로서 불교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목적에서 호국불교가 주목된 것이다. 하지만 한국불교사에 나타난 다양한 층위의 사례와 시기별 차이를 호국불교라는 획일적, 근대적 틀 속에 무분별하게 귀속시켰다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있다.

한국불교사의 호국 사례와 호국불교 인식을 시대별로 검토한 결과, 불교가 국왕 및 국가권력의 후원을 받고 정치적으로 활용된 고대는 물론 불교국가인 고려시대에도 호국과 호법의 개념은 불가분의 관계였다. 하지만 승유억불로 상징되는 조선에서는 호법조차 쉬운 일이 아니었고 따라서 호국의 의지를 불교계에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그럼에도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존망의 위기에서 불교계는 근왕을 위해 펼쳐 일어났고 이는 그전과는 차원이 다른 호국의 새로운 사례로 주목할 수 있다. 즉 유교적 가치인 충이 개인의 도덕으로 체화되었고 또 당시 상황이 국왕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던 것도 있지만 승군 활동의 자발성도 인정되는 만큼, 조선시대 불교의 호국적 발양은 시대성과 연동하여 이해해야 한다. 결국 불교계의 승군 활동과 충의의 공적은 조선후기 불교가 존립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 되었고, 이는 호국을 통해 호교를 달성한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한국불교의 호국

전통은 불교 본연의 가치나 교리의 원형과는 상당한 괴리를 가지는 것이지만, 왕권이 불법보다 우위에 있었던 동아시아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한국에서도 시대와 지역의 차이를 뛰어넘어 호교를 위한 호국불교의 전통을 형성해 온 것이다.

참고문헌

1. 원전자료

『三國史記』, 『三國遺事』, 『宋史』, 『高麗史』, 『朝鮮王朝實錄』
海印寺護國三寶戰亡緇素玉字(국립중앙박물관)
『東國李相國集』, 『東人之文四六』, 『大東野乘』, 『奮忠紆難錄』, 『南漢志』
『大覺國師文集』, 『禪門拈頌拈頌說話會本』, 『圓鑑錄』, 『太古和尚語錄』
『奇巖集』, 『懶庵雜著』, 『浮休堂大師集』, 『月渚堂大師集』, 『靜觀集』,
『曾谷集』, 『青梅集』, 『淸虛堂集』, 『鞭羊堂集』, 『虛白集』

2. 지역서

국사편찬위원회 편, 『신앙과 사상으로 본 불교전통의 흐름』, 두산동아,
2007.
金德洙, 『壬辰倭亂과 佛教義僧軍』, 경서원, 1993.
金哲俊·崔柄憲, 『史料로 본 韓國文化史』, 일지사, 1986.
安東相老(權相老), 『臨戰의 朝鮮佛教』, 卍商會, 1943.
이재호, 『三國史記』 I, 솔 출판사, 2006.
伊吹敦 저·최연식 역, 『새롭게 다시 쓰는 중국 禪의 역사』, 대숲바람,
2005.
정구복 외, 『譯註 三國史記』 3·4 주석편(상·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高橋亨, 『李朝佛教』, 寶文館, 1929.
三品彰英, 『新羅花郎の研究』, 三省堂, 1943.

3. 논문

강호선, 「고려말 禪僧의 入元遊歷과 元淸規의 수용」, 『韓國思想史學』40,
2012.
金庠基, 「花郎과 彌勒信仰에 대하여」, 『李弘植回甲紀念 韓國史學論叢』,
1969.
金相鉉, 「新羅 三寶의 成立과 그 意義」, 『東國史學』14, 1980.
——, 「집일금광명경소-금광명최승왕경현주소인 원효소의 집편」, 『東洋

學』24, 단국대동양학연구소, 1994.
김영진, 「식민지 조선의 황도불교와 공(空)의 정치학」, 『한국학연구』22,
인하대한국학연구소, 2010.
金煥泰, 「新羅佛教 護國思想」, 『朴吉眞華甲紀念 韓國佛教思想史』, 원광대
출판부, 1975.
김용태, 「조선후기 華嚴寺의 역사와 浮休系 전통」, 『지방사와 지방문화』
12-1, 2009.
——, 「식민지 불교의 혁신론과 문명개화의 여정」, 『東國史學』48, 2010.
——, 「임진왜란 의승군 활동과 그 불교사적 의미」, 『보조사상』37, 2012.
김종명, 「『호국불교』 개념의 재검토」, 『불교연구』17, 2000.
김종만, 「호국불교의 반성적 고찰- 한국불교 전통에 대한 비판적 검토」,
『불교평론』3, 2000.
김형우, 「고려시대 국가적 불교행사에 대한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992.
南東信, 「新羅 中古期 佛教治國策과 皇龍寺」, 『新羅文化祭學術論文集』22
(皇龍寺의 綜合的 考察), 2001.
——, 「三國統一과 思想界의 動向 -中代初 국가와 불교 교단의 관계를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研究』23, 2001.
南希叔, 「朝鮮後期 佛書刊行 研究-眞言集과 佛教儀式集을 中心으로」, 서
울대 國史學科 박사논문, 2004.
文明大, 「신라 神印宗의 연구- 신라 밀교와 통일신라 사회-」, 『震檀學報』
41, 1976.
申東河, 「新羅 佛國土思想의 展開樣相과 歷史的 意義」, 서울대 國史學科
박사논문, 2000.
安啓賢, 「朝鮮前期의 僧軍」, 『東方學志』13, 1972.
禹貞相, 「李朝佛教의 護國思想에 對하여-特히 義僧軍을 中心으로」, 『白
性郁頌壽記念 佛教學論文集』, 1959.
李基白, 「黃龍寺와 그 創建」, 『新羅時代의 國家佛教와 儒教』, 國學研究院,
1978.
장지훈, 「新羅 中古期の 護國佛教」, 『韓國史學報』4, 1998.
정병조, 「新羅法會儀式的 思想的 性格」,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4,

1991.

丁仲煥, 「新羅聖骨考」, 『李弘植華甲紀念 韓國史學論叢』, 1973.

江田俊雄, 「朝鮮佛教と護國思想-特に新羅時代のそれに就いて」, 『朝鮮』 239, 1935.

矢吹慶輝, 「鎮護國家と日本佛教」, 『朝鮮佛教』 108, 1935.

土屋詮教, 「國體と佛教の勤王護國思想」, 『中央佛教』 25-11, 1941.

Abstract

"Buddhism's Guarding the Country" in the History of Korean Buddhism, and the Korean People's Perception of such 'Buddhist Role in Protecting and Saving the Country'

Kim Yong-tae

(Professor of Humanities Korea Project,
Dongguk Univ. in Seoul)

Examined in this article, are cases in which Buddhist people or values played a pivotal role in the security of the country, or in which Buddhism was deemed crucial in protecting or saving it. Also examined are the people's views of the "Buddhist role" in the issue of defending the country, which slightly differed from time period to time period, as from Shilla to Goryeo, or from the early half of the Joseon period to the latter. All their unique characteristics seem to have been reflecting the aspects of all the respective time periods.

First, regarding the Shilla dynasty period, in which an ancient form of a religious philosophy (with Buddhist colors and tone) to 'save-the-country' emerged for the first time, relevant sources are examined to reveal three important aspects: A) The "Buddhist Land" concept and all the Buddhist temples which were designated as crucial monasteries for their roles in saving the country, B) Buddhist Ceremonial gatherings and ritual codes related to the Saving-the-Country philosophy, and no other than C) the Saving-the-Country religion.

Next, regarding the period of Goryeo, which was a Buddhist country, many aspects including the Buddhist monks' participation in

the war efforts, the dynastic Buddhist rituals and events that were overseen by the state and the government, the merging of Buddhism and the Save-the-Country religion, and the people's hope for overcoming dynastic crises through the creation of Grand Collections of Buddhist Sutras, are all examined.

Then regarding the early half of the Joseon dynasty, examined are both the continuation as well as changes that happened to not only Buddhist traditions but also 'Saving-the-country' sentiments, while the Buddhist army members' fight against the Japanese troops during the war in the 1590s is examined for the Joseon's latter half. It seems that Buddhism was able to survive the Joseon period by prioritizing the values of the era, which were loyalty and justice.

The concept of "Guarding-the-Country Buddhism" was created during the modern period, in the wartime mobilization phase of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and also during the promotion of state-generated Nationalism throughout the country after the liberation in 1945. Yet the Buddhist tradition of contributing to the safety and welfare of the society had always been an important part of the Korean Buddhist history. Surely, the actual meaning and characteristics they had changed by the passage of time, so an appropriate understanding of Buddhism and the part it played in service of the country, would only be possible by taking that point into account.

Key words

Guarding(Saving, Protecting) the Country, Buddhism to Guard the Country, The Religion of Guarding the Country, Loyalty and Justice, the nature of the period